

# 중국 청년의 시각에서 본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 취업 지역 선택의 결정 요인 분석\*

유정원\*\*

## | 목 차 |

I. 서론	IV. 취업 요인의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 분석
II. 설문 설계	V. 결론
III. 청년층 취업 결정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징진지(京津冀) 공동 발전 전략이 청년층 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인구 위기와 청년 인재 유출이라는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징진지 지역의 발전 전략이 청년층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허베이성 3선 도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지 및 취업지 선택 요인을 검증했다. 869개 유효 응답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 결과, 청년층 취업 결정에 개인적 관계 요인(부모 지지, 인간관계, 친밀한 관계, 출신지 선호)보다 사회 환경 요인(사회적 지지, 민생정책)과 경제 환경 요인(지역 발전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민생정책은 개인적 관계 변수들의 매개변수로 작용했으며, 청년층은 취업 지역 선택 시 개인적 친분보다 지역 사회 지원 시스템, 정부 정책 신뢰, 미래 전망을 중요시했다. 이는 중국 청년층이 개인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임을 보여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 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82298).

\*\*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부교수

다. 징진지 발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 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지지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발전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의 지역 통합 발전 정책과 청년 인재 유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 청년 취업, 허베이성, 위계적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

## I. 서론

징진지 도시군은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京津冀)을 아우르는 주요 경제권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징진지 공동 발전 계획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2014년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징진지 공동 발전 좌담회(京津冀協同發展座談會)’에서 징진지 일체화를 국가사업으로 지정하였고, 2015년 3월 양회에서 징진지를 국가 3대 전략사업(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징진지)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징진지 공동 발전 계획 강요(京津冀協同發展規劃綱要)』가 발표되면서 징진지 일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징진지 도시군은 시진핑 정부의 대표적인 통합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은 수도를 중심으로 베이징-톈진-허베이의 기능을 세밀하게 분화하여 세계 수준의 도시군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은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의 장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분업 구조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sup>2)</sup> 시행된 지 10년을 경과하면서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의 성과를

1) 대외경제연구원 (2014), “징진지 공동발전 추진 동향”, <https://ie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27147>. (2024년 12월 19일 검색)

2) 光明网, “京津冀協同發展十年成效与展望”, <https://theory.gmw.cn/2024-05/22/content>

검토하는 작업이 다방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연구는 주로 경제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sup>3)</sup> 기존 연구들은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각 도시의 특성에 맞춘 산업 구조 조정과 특화 전략에 대해 분석해 왔다(방금용·차경자 2016; 최정석 2015; 김수한·민귀식 2017; 李慧燕 2022; 邱紅·魏雅鑫·王宇純 2022). 실제로 2022년 기준 징진지 지역의 GDP 총량이 10조 293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의 8.9%를 차지하여 창장경제벨트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경제권으로 성장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다만,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경제 외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다.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인구 이동 효과는 징진지 공동 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2010년 제6차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베이징에 유입한 이주 인구 중 허베이성 출신은 22.1%를 차지하였다.<sup>5)</sup> 2020년 제7차 인구 센서스에서는 25.7%로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sup>6)</sup> 2017년 9월 국무원은 『베이징도시총체규획 2016-2035(北京城市總體規畫2016-2035)』을 비준하고 베이징 인구를 2,300만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9.38%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3년 말에 37.70%까지 하락하였다.<sup>7)</sup> 베이징 인구 유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허베이성 출신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인구 유입이 제한되면서 베이징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베이징 상주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17년 이후 6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2022

\_37336960.htm. (2024년 12월 19일 검색)

3) 한국무역협회, “징진지 통합 일체화 10년의 변화”,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A06829635172BBFEFCFD0AEP5F66552.Hyper?no=8149](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A06829635172BBFEFCFD0AEP5F66552.Hyper?no=8149). (2024년 12월 19일 검색)

4) 한국무역협회, 위의 글.

5) 人民网, “京津冀城鎮化：北京常住外來人口河北人佔1/5”, <http://finance.people.com.cn/BIG5/n/2014/0331/c1004-24777850.html>. (2024년 12월 31일 검색)

6) 中國城市中心, “全國人口流動版圖：誰正在“吸走”誰?”, [https://m.thepaper.cn/baijiahao\\_18760209](https://m.thepaper.cn/baijiahao_18760209). (2024년 12월 31일 검색)

7) 中房网, “2000年以來北京市人口規模及結構主要變化”, <http://www.fangchan.com/data/20/2024-08-29/7234756187357778044.html>. (2025년 1월 3일 검색)

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3년 말까지 60세 이상의 상주인구는 15.87% 증가한 반면, 15-29세 인구는 13.51% 감소하였다. 이에 베이징시는 『베이징시졸업생유치관리법(北京市引進畢業生管理辦法)』을 통과시켜 급속한 인구 감소를 막고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綠色通道)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인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향촌진흥전략규획 2018-2022(國家鄉村振興戰略規畫 2018-2022)』 및 『國家新型城鎮化規畫 2021-2035(국가신형도시화규획 2021-2035)』에서는 후커우 제도의 완화를 통해 생산 요소, 특히 젊은 노동 인구의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징진지 지역은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노후보장,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 유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 인구의 유입은 앞으로 징진지 핵심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허베이성 3선 도시의 청년층이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거주지 및 취업지를 선택할 때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하였듯이 청년 인구 유입은 징진지 핵심 도시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이다. 따라서 청년의 시각으로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경제 성과 중심의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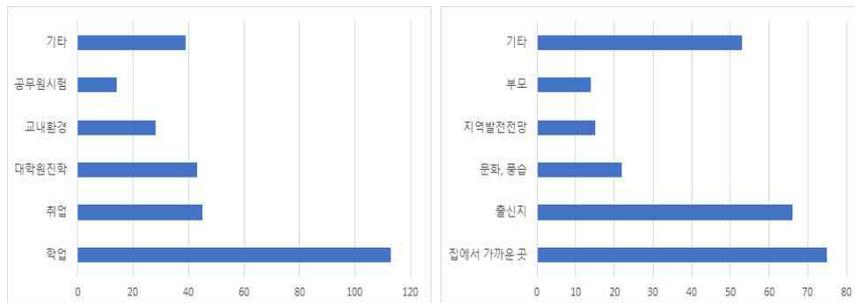
## II. 설문 설계

2022년 3월, 중국의 3선 도시 소재 대학에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 청년들의 관심사와 취업 선택 요인을 조사하였다. 3선 도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구의 유입과 유출 방향을 판단함에 있어 3선 도시 인구가 1·2선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반대 방향의 이동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설문은 정식 조사를 앞둔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와 “졸업 후 취업할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자유 응답이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1> 개방형 설문 결과

(a)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n=199)      (b) 졸업 후 취업할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n=199)



▪ 저자 조사 자료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학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 “취업”, “공무원 시험”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국 대졸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답변이었다. 한 학생은 자유 응답에 “대학 학벌로는 이렇게도 취업이 힘든 겁니까?”라는 한탄을 남기기도 했다. 이 학생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한, “졸업 후 취업할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답변으로는 “집이 가까워서”, “출신지” 등 개인적 친밀성을 이유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지역의 발전 전망”, “취업 기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청년층이 거주지 및 취업지를 선택할 때 개인의 관계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이나 경제적 기회보다는 가족 및 고향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李春玲(2022)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하에서 중국 Z세대 청년의 가치관

과 행동 양식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許敏·許大炜(2023)도 중국 대학생들이 취업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郭彩汾·歐陽超群(2024)의 연구 또한, 자신감 형성과 취업 선택에 있어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중국 대학생들이 현재 취업 시장에서 강한 스트레스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청년층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탕핑(躺平)’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탕핑도 결국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이다.

청년층이 감내하고 있는 불안감과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나 개발 전략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은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 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제프리 삭스(2015)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Harris & Todaro(1970)는 청년층의 이주 결정 요인은 단순한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청년층은 장기적인 기회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이 허베이성 대학생들에게 거주지 및 취업지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제 불황과 성장 둔화로 인해 취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당수의 청년들이 개인적·사회적 관계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 발전 가능성보다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취업 및 거주지를 선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Kahneman & Tversky(1979)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청년층이 모험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위험을 줄이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Hobfoll(1989)의 연구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 자원(부모, 고향, 지역사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이 기존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취업과 생활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 선택을 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징진지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이면의 심리적 기제가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의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취업 및 거주지 선택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1> 설문문항

모형	문항수	이론적 배경	문항
개인적 관계 (모형 1)	4문항	사회적 자본 이론	A1 부모님의 지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A2 나는 취업할 도시를 선택할 때 인간관계(친척, 친구)를 고려한다.
			A3 나는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A4 나는 본가와 가까운 곳에 취업하고 싶다.
사회환경 (모형2)	2문항	사회적 지지 개념	B1 사회의 지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B2 나는 취업할 도시를 선택할 때 민생정책(의료, 양로, 주택 등) 수준을 고려한다.
경제환경 (모형3)	3문항	합리적 선택이론	C1 전공과 관련 업종 전망은 내 미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C2 나는 취업할 도시를 선택할 때 임금을 고려한다.
			C3 징진지 도시군은 발전 전망 평가
징진지 취업 희망 (모형4)	1문항	성장거점 이론	F 나는 징진지 도시군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설문은 총 네 가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개인적 관계’ 모형은 개인의 사회관계망과 신뢰가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개인이 취업 지역을 선택할 때 부모나 인간관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조사하여 사회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모험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설계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관계망과 신뢰가 취업 지역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사회 환경’ 모형은 지역의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자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주지역을 결정한다(Tolsdorf 1976, 413). 사회적 지지는 복지 제도나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직업의 안정성, 노동 환경, 교육 및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 환경에 대한 설문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환경에 대한 신뢰가 취업 지역 선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경제 환경’ 모형은 개인이 최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설계되었다(Jonge 2012, 8). 청년층이 특정 도시에서 취업을 결정할 때 임금 수준, 직업 안정성, 도시의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제 환경에 대한 설문은 청년층이 취업 지역을 선택할 때 경제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환경이 청년층의 취업 지역 선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징진지 인식’ 모형은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취업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중국의 SNS 플랫폼인 위챗(WeChat)을 통해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허베이성 3선 도시 소재 3개 대학에 배포되었으며, 총 869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였다.

&lt;표 2&gt; 설문 대상

대학	성별	명	학년	명	전공	명	소계	총합
대학A	남	149	1	218	문과	295	524	869
	여	375	2	184	이과	176		
			3	122	예체능	53		
대학B	남	39	1		문과	84	128	
	여	89	2	10	이과	34		
			3	118	예체능	10		
대학C	남	167	1	2	문과	15	217	
	여	50	2	3	이과	198		
			3	212	예체능	4		

### Ⅲ. 청년층 취업 결정 요인: 위계적 회귀 분석

Ⅲ장에서는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에 대한 허베이성 대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거주지 및 취업 도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각 변수 집단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사회 환경 인식, 경제 환경 인식 등의 변수가 청년층의 징진지 지역 취업 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857로, 내적 일관성이 높아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통계량 분석 결과, 모형 1의  $F=65.766(p<.001)$ , 모형 2의  $F=51.997(p<.001)$ , 모형 3의  $F=46.658(p<.001)$ 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된  $R^2$  값은 모형 1에서 0.230, 모형 2에서 0.261, 모형 3에서 0.321로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될 때마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수	개인적 관계(모형1)				사회 환경(모형2)				경제 환경(모형3)			
	B	SE	$\beta$	t(p)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1.43	0.269	-	5.33(***)	1.01	0.272	-	3.71(***)	0.098	0.287	-	0.34
A1	0.208	0.055	3.812	3.81(***)	0.092	0.058	1.602	1.6	0.038	0.056	0.673	0.67
A2	0.363	0.047	7.72	7.72(***)	0.188	0.059	3.192	3.19(**)	0.089	0.059	1.517	1.52
A3	0.14	0.054	2.58	2.58(*)	0.101	0.054	1.869	1.87	0.084	0.053	1.589	1.59
A4	0.104	0.043	2.406	2.41(*)	0.069	0.043	1.614	1.61	0.023	0.042	0.553	0.55
B1					0.205	0.052	3.952	3.95(***)	0.189	0.05	3.781	3.78(***)
B2					0.264	0.059	4.495	4.49(***)	0.17	0.059	2.857	2.86(**)
C1									0.095	0.065	1.476	1.48
C2									0.087	0.056	1.54	1.54
C3									0.293	0.039	7.595	7.59(***)
F(p)	65.766(***)				51.997(***)				46.658(***)			
R <sup>2</sup>	0.233				0.266				0.328			
adj.R <sup>2</sup>	0.230				0.261				0.321			
Cronbach's Alpha					0.857							

▪ \*p<.05, \*\*p<.01, \*\*\*p<.001  
 종속변수(F) : 정진지 취업 희망

개인적 관계 변수를 포함한 1단계 분석에서는 부모의 지지(A1) (B=0.208, SE=0.055, p<.001), 인간관계(A2) (B=0.363, SE=0.047, p<.001), 친밀한 관계(A3) (B=0.140, SE=0.054, p<.05), 출신지 선호(A4) (B=0.104, SE=0.043, p<.05) 모두가 정진지 취업 희망(F)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특히 인간관계(A2)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B=0.363, p<.001).

사회 환경 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3.1%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지(B1) (B=0.205, SE=0.052, p<.001)와 민생 정책(B2) (B=0.264,

SE=0.059,  $p<.001$ )가 징진지 취업 희망(F)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A1, A3, A4의 영향력은 감소하면서 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유의성을 잃었다. 이는 사회 환경 변수가 개인적 관계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 환경 변수를 포함한 3단계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6% 추가 증가하였다. 새롭게 투입된 세 개 변수 중 징진지 발전 전망(C3)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B=0.293$ , SE=0.039,  $p<.001$ ), 나머지 경제 환경 변수(C1, C2)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관계 변수(A1, A2, A3, A4)는 모두 유의성을 잃었으며, 사회 환경 변수(B1, B2)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였다. 이는 개인적 관계보다 사회적 환경 변수가 취업 지역 선택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B1), 민생 정책(B2), 징진지 발전 전망(C3)가 징진지 취업 희망(F)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는 가족, 친족, 지인, 지역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취업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모형 2에서 사회 환경 변수가 추가되면서 개인적 관계 변수의 유의성이 감소하였다. 모형 3에서는 경제 환경 변수가 추가된 이후에도 사회적 지지(B1)와 민생 정책(B2)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였으며, 징진지 발전 전망(C3)이 새로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통해 사회 환경 요인이 개인적 관계보다 취업 지역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이 취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만으로는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나 영향력 전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특정 변수가 추가될 때 기존 변수들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직접 효과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IV장에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 IV. 취업 요인의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 분석

### 1. 매개효과 연구 설계

Ⅲ장에서 수행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A1, A2, A3, A4), 사회 환경(B1, B2), 경제 환경(C3)이 징진지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특정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변수들의 유의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변수 간의 단순한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관계와 매개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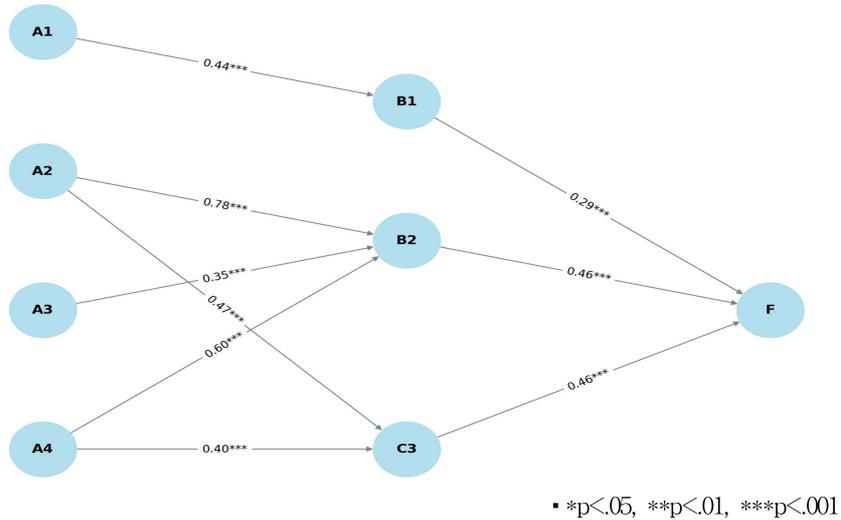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B1)와 민생 정책(B2)이 포함된 2단계에서 개인적 관계 변수(A1, A3, A4)의 유의성이 감소하였으며, 경제 환경 요인(C3)이 포함된 최종 모형에서도 사회 환경 변수(B1, B2)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종속변수(F)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변수를 거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직접 효과 분석을 넘어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A1은 B1을 통해, A2는 B2와 C3를 통해, A3는 B2를 통해, A4는 B2와 C3를 통해 징진지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B1(사회적 지지), B2(민생 정책), C3(징진지 발전 전망)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 모형에서도 유의한 변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단순한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 역할 수행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A1 \rightarrow B1 \rightarrow F$ ,  $A2 \rightarrow B2/C3 \rightarrow F$ ,  $A3 \rightarrow B2 \rightarrow F$ ,  $A4 \rightarrow B2/C3 \rightarrow F$ 의 경로를 설정하고 <그림 2>의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 1의 변수들은 B1, B2, C3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종속 변수 F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단순한 상관관계만으로 매개효과를 확정할 수 없으며,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1, B2, C3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들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여 변수 간의 영향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림 2> 변수 간 상관계수와 매개효과 경로 다이어그램



## 2. 주요 변수 간 관계 분석

2절에서는 Baron & Kenny의 3단계 절차를 적용하여 개인적 관계 변수(A1, A2, A3, A4)가 사회 환경 변수(B1, B2) 또는 경제 환경 변수(C3)를 매개로 하여 징진지 취업 희망(F)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A1이 B1을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F=210.01, p<.001; 2단계 F=69.544, p<.001; 3단계 F=52.747, p<.001). 1단계에서 A1이 B1에 미치는 영향은 B=0.471, p<.001로 나타나, A1이 B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2단계에서 A1이 F에 미치는 영향은 B=0.454, p<.001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A1의 영향력이 B=0.302, p<.001로 감소하였으며, B1이 F에 미치는 영향은 B=0.322, p<.001로 나타났다. 이는 A1이 직접적으로 F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B1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4> A1 → B1 → F 매개효과 검증

A1 → B1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1.559	0.137	0.568	14.492***	210.01***	0.195	0.194
	A1 → B1	0.471	0.033					
2	(상수)	3.606	0.229	0.547	8.339***	69.544***	0.074	0.073
	A1 → F	0.454	0.054					
3	(상수)	3.103	0.241	0.364	5.07***	52.747***	0.109	0.107
	A1 → F	0.302	0.06					
	B1 → F	0.322	0.056					

▪ \*p<.05, \*\*p<.01, \*\*\*p<.001

다음으로, A2가 B2를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단계 F=1351.501, p<.001; 2단계 F=213.131, p<.001; 3단계 F=128.863, p<.001). 1단계에서 A2가 B2에 미치는 영향은 B=0.742, p<.001로 나타나 A2가 B2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2단계에서는 A2가 F에 미치는 영향이 B=0.513, 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나, 3단계에서 A2의 영향력은 B=0.255, p<.001로 감소하였고, B2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348, p<.001로 나타났다. 이는 B2가 A2와 F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A2 → B2 → F 매개효과 검증

A2 → B2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1.531	0.118	0.62	36.763***	1351.501***	0.609	0.609
	A2 → B2	0.742	0.02					
2	(상수)	2.543	0.206	0.429	14.599***	213.131***	0.197	0.196
	A2 → F	0.513	0.035					
3	(상수)	2.01	0.22	0.213	4.626***	128.863***	0.229	0.228
	A2 → F	0.255	0.055					
	B2 → F	0.348	0.058					

▪ \*p<.05, \*\*p<.01, \*\*\*p<.001

A3가 B2를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단계 F=121.903, p<.001; 2단계 F=72.769, p<.001; 3단계 F=126.421, p<.001). 1단계에서 A3가 B2에 미치는 영향은 B=0.47, p<.001로 나타났으며, A3가 B2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2단계에서 A3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452, p<.001로 나타났다. 그러나 3단계에서 A3의 영향력은 B=0.217, p<.001로 감소하였으며, B2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5, p<.001로 유의하였다. 이는 B2가 A3와 F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A3 → B2 → F 매개효과 검증

A3 → B2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4.019	0.164	0.552	11041***	121.903***	0.123	0.122
	A3 → B2	0.47	0.043					
2	(상수)	3.785	0.204	0.531	853***	72.769***	0.077	0.076
	A3 → F	0.452	0.053					
3	(상수)	1.775	0.243			126.421***	0.226	0.224
	A3→F	0.217	0.052	0.255	4189***			
	B2→F	0.5	0.039	0.439	1289***			

▪ \*p<.05, \*\*p<.01, \*\*\*p<.001

A4가 C3를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단계 F=163.322, p<.001; 2단계 F=137.533, p<.001; 3단계 F=148.443, p<.001). 1단계에서 A4가 C3에 미치는 영향은 B=0.375, p<.001로 나타나 A4가 C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A4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397, p<.001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A4의 영향력은 B=0.237, p<.001로 감소하였으며, C3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428, p<.001로 나타났다. 이는 C3가 A4와 F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A4 → C3 → F 매개효과 검증

A4 → C3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3.721	0.17	0.291	12.78***	163.322***	0.159	0.158
	A4 → C3	0.375	0.029					
2	(상수)	3.236	0.196	0.308	11.727***	137.533***	0.137	0.136
	A4 → F	0.397	0.034					
3	(상수)	1.645	0.227	0.184	6.903***	148.443***	0.255	0.254
	A4 → F	0.237	0.034					
	C3 → F	0.428	0.036					

▪ \*p<.05, \*\*p<.01, \*\*\*p<.001

또한, A2가 C3를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단계 F=242.554, p<.001; 2단계 F=213.131, p<.001; 3단계 F=168.978, p<.001). 1단계에서 A2가 C3에 미치는 영향은 B=0.474, p<.001로 나타났으며, A2가 C3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2단계에서 A2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513, p<.001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A2의 영향력은 B=0.337, p<.001로 감소하였으며, C3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372,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C3가 A2와 F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A2 → C3 → F 매개효과 검증

A2 → C3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3.127	0.178	0.396	15.574***	242.554***	0.219	0.218
	A2 → C3	0.474	0.03					
2	(상수)	2.543	0.206	0.429	14.599***	213.131***	0.197	0.196
	A2 → F	0.513	0.035					
3	(상수)	1.378	0.227	0.281	8.94***	168.978***	0.281	0.279
	A2 → F	0.337	0.038					
	C3 → F	0.372	0.037					

▪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A4가 B2를 통해 F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단계 F=494.584, p<.001; 2단계 F=137.533, p<.001; 3단계 F=125.04, p<.001). 1단계에서 A4가 B2에 미치는 영향은 B=0.532, p<.001로 나타나 A4가 B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A4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397, p<.001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A4의 영향력은 B=0.158, p<.001로 감소하였으며, B2가 F에 미치는 영향은 B=0.45, p<.001로 나타났다. 이는 B2가 A4와 F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A2 → C3 → F 매개효과 검증

A4 → B2 → F 매개효과 검증								
단계	경로	B	SE	β	t(p)	F(p)	R <sup>2</sup>	adj.R <sup>2</sup>
1	(상수)	2.771	0.139	0.413	22.239***	494.584***	0.363	0.363
	A4 → B2	0.532	0.024					
2	(상수)	3.236	0.196	0.308	11.727***	137.533***	0.137	0.136
	A4 → F	0.397	0.034					
3	(상수)	1.991	0.225			125.04***	0.224	0.222
	A4→F	0.158	0.04	0.122	3.92***			
	B2 → F	0.45	0.046	0.395	9.863***			

▪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적 관계 변수(A1, A2, A3, A4)는 사회 환경 변수(B1, B2) 또는 경제 환경 변수(C3)를 매개로 징진지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치며,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적 관계 요인이 직접적으로 취업 희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적 지지(B1), 민생정책(B2), 징진지 발전 전망(C3) 등의 매개 변수를 통해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 3. 사회적 지지, 민생정책, 지역 발전 전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2절에서는 부모의 지지(A1), 인간관계(A2), 친밀한 관계(A3), 출신지 선

호(A4) 등의 개인적 요인이 징진지 취업 희망(F)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B1), 민생정책(B2), 징진지 발전 전망(C3)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취업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환경(B2)과 지역 발전 전망(C3)이 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 결과, 모든 매개효과 경로에서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매개효과 경로에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유효하며, 해당 매개효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검증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표 10> 매개효과 결과 및 검증

매개효과 경로	독립변수 → 종속변수	총효과 (Total Effect)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매개효과 비율 (%)	매개효과 강도	Bootstrap 간접효과 검증	
							간접효과	95% CI
A1→B1→F	A1 → F	0.454	0.302	0.152	33.5	중간 정도	0.209	0.151 ~-0.27
A2→B2→F	A2 → F	0.513	0.255	0.258	50.3	강한 매개효과	0.417	0.347 ~-0.488
A3→B2→F	A3 → F	0.452	0.217	0.235	52.0	강한 매개효과	0.261	0.191 ~-0.336
A4→C3→F	A4 → F	0.397	0.237	0.16	40.3	중간-강한 매개효과	0.198	0.142 ~-0.255
A2→C3→F	A2 → F	0.513	0.337	0.176	34.3	중간 정도	0.25	0.193 ~-0.313
A4→B2→F	A4 → F	0.397	0.158	0.239	35.8	중간 정도	0.295	0.236 ~-0.363

부모의 지지(A1)는 사회적 지지(B1)를 통해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33.5%로 중간 수준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A1의 총효과는  $B=0.454$ 이었으며, 직접효과는  $B=0.302$ , 간접효과는  $B=0.152$ 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151\sim 0.270$ 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B1)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를 통해 취업 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낮다면, 부모의 지지가 높더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간관계(A2)는 민생정책(B2)을 매개로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50.3%로 강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A2의 총효과는  $B=0.513$ , 직접효과는  $B=0.255$ , 간접효과는  $B=0.258$ 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347\sim 0.488$ 로, 매개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생정책(B2)이 취업 희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간관계가 넓더라도 해당 지역의 민생정책(B2)이 부족하면 취업 희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민생정책이 잘 구축된 지역에서는 인간관계보다 정책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취업 희망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슷한 경향이 친밀한 관계(A3)에서도 관찰되었다. 친밀한 관계(A3)는 민생정책(B2)을 매개로 하여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52.0%로 본 연구에서 가장 강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A3의 총효과는  $B=0.452$ , 직접효과는  $B=0.217$ , 간접효과는  $B=0.235$ 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191\sim 0.336$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관계망이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공공서비스(B2)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 취업 희망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취업 희망이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출신지 선호(A4) 또한 지역 발전 전망(C3)을 매개로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40.3%로 중간-강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A4의 총효과는  $B=0.397$ , 직접효과는  $B=0.237$ , 간접효과는

는  $B=0.160$ 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142\sim 0.255$ 로 확인되었다. 즉, 단순히 출신지에 근접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경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취업 희망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신지와 가깝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낮다면 취업 희망이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출신지 선호(A4)와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강한 취업 희망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간관계(A2)는 징진지 발전 전망(C3)을 매개로 하여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34.3%로 중간 수준의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A2의 총효과는  $B=0.513$ , 직접효과는  $B=0.337$ , 간접효과는  $B=0.176$ 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193\sim 0.313$ 로 확인되었다. 인간관계(A2)가 긍정적이더라도, 징진지 지역의 경제 발전 전망(C3)이 낮으면 취업 희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인간관계와 경제적 전망(C3)이 모두 긍정적일 경우, 취업 희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즉, 인간관계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경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 선호(A4)는 민생정책(B2)을 매개로 취업 희망(F)에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비율은 35.8%로 중간 정도의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A4의 총효과는  $B=0.397$ , 직접효과는  $B=0.158$ , 간접효과는  $B=0.239$ 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236\sim 0.363$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출신지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 희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민생정책(B2)이 안정적이어야만 취업 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신지(A4)와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공정책(B2)이 취업 희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적 요인(A1, A2, A3, A4) 자체보다 사회 환경(B1, B2)과 징진지 발전 전망(C3)이 취업 희망 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간관계나 출신지 선호보다 경제 성장 전망과 공공정책이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은 인프라 구축과 신흥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취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공공정책 강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경제 성장 전망(C3)과

사회 환경(B1, B2)이 개선될 경우, 청년층의 취업 희망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V. 결론

최근 중국에서는 ‘캥거루족(啃老族)’이나 ‘거유족(巨幼族)’과 같은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말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도전 정신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풍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청년층은 졸업 후 본가로 돌아가거나 부모 근처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취업 선택에서도 출신지나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본 연구는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이 인구 위기 속에서 청년 인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관심과 선호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개방형 설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 관계,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징진지 취업 희망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설문을 설계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관계 변수(A1, A2, A3, A4)는 분석이 진행될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 모형에서는 사회 환경(B1, B2)과 경제 환경(C3)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B1), 민생정책(B2), 지역 발전 전망(C3)만이 징진지 취업 희망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개인적 관계 변수는 이들 변수의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지지(B1), 민생정책(B2), 지역 발전 전망(C3)이 개인적 관계 변수에 대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청년층이 특정 지역(본 연구에서는 징진지 지역)에서

취업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는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이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신뢰와 “더 나은 미래가 존재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개인적 관계보다는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안정성이 청년층의 취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최근 중국의 청년층이 개인적인 관계에 과도하게 기대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 거꾸로 사회가 청년층에게 신뢰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 관계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징진지 공동 발전 전략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과 같은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이 청년 인재 유치의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지역 통합 발전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도시권, 대구-경북 통합 등 지역 간 공동 발전 전략과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의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물리적 도시 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은 지역 경제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층의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년층의 지역 이동과 정착 결정에 있어 개인적 관계보다 사회적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신뢰와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 발전 계획이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청년들에게 “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징진지 지역 청년들의 인식과 선호를 통해 지역 통합 발전 전략의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청년 인재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지역 공동 발전 전략에 있어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한국의 지역 통합 발전 정책과 청년층 인구 유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수환·민귀식 (2017). “중국 징진지 도시군 지역발전과 산업 특징에 관한 연구-역내 산업구조 및 특화도 비교 분석.” 『중국과 중국학』. 제31권, pp. 155-180.
- 방금용·차경자 (2016). “중국 징진지(京津冀) 일체화전략의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4호, pp. 73-90.
- 제프리 삭스 (2015).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홍성완 역. 21세기북스.
- 최정석 (2015). “중국 징진지(京津冀)도시군의 개발협력 요인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3권. 4호, pp. 77-100.
- Harris, J. R. and M.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Issue 1, pp 126-142.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Issue 3, pp. 513-524.
- Jonge, J. (2012). *Rethinking rational choice theory: a companion on rational and moral ac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Kahneman, D. an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Issue 2, pp. 263-291.
- Tolsdorf, C.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Vol. 15. Issue 4, pp. 407-417.
- 郭彩汾·歐陽超群 (2024). “新職業教育法視域下高職學生的職業自信培育路徑.” 『內江科技』. 第6期, pp. 96-97.
- 邱紅·魏雅鑫·王宇純 (2022). “京津冀城市群創新效率及其影響因素的實証分析.” 『經濟縱橫』. 第11期, pp. 90-97.
- 李春玲 (2022). “社會經濟變遷中的Z世代青年：構成、觀念與行爲.” 『中國青年年研究』. 第8期, pp. 21-27.
- 李慧燕 (2022). “京津冀城市群新型城鎮化與鄉村產業振興耦合協調關係比較研究.” 『生態經濟』. 第38卷. 第9期, pp. 118-124.
- 許敏·許大煒 (2023). “烏卡時代”生涯建構理論指導下的大學生高質量就業研究.” 『中國成人教育』. 第22期, pp. 36-39.

## 2. 기타

- 대외경제연구원 (2014). “징진지 공동발전 추진 동향.”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27147>. (2024년 12월 19일 검색)
- 한국무역협회. “징진지 통합 일체화 10년의 변화.”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A06829635172BBFEFCFD0AEF5F66552.Hyper?no=8149](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A06829635172BBFEFCFD0AEF5F66552.Hyper?no=8149). (2024년 12월 19일 검색)
- 光明网. “京津冀協同發展十年成效与展望.” [https://theory.gmw.cn/2024-05/22/content\\_37336960.htm](https://theory.gmw.cn/2024-05/22/content_37336960.htm). (2024년 12월 19일 검색)
- 人民网. “京津冀城鎮化：北京常住外來人口河北人佔1/5.” <http://finance.people.com.cn/BIG5/n/2014/0331/c1004-24777850.html>. (2024년 12월 31일 검색)
- 中國城市中心. “全國人口流動版圖：誰正在“吸走”誰?” [https://m.thepaper.cn/baijiahao\\_18760209](https://m.thepaper.cn/baijiahao_18760209). (2024년 12월 31일 검색)
- 中房网. “2000年以來北京市人口規模及結構主要變化.” <http://www.fangchan.com/data/20/2024-08-29/7234756187357778044.html>. (2025년 1월 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5년 02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25년 02월 24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03월 26일 |

| ABSTRACT |

**Beijing–Tianjin–Hebei Coordinated Development  
Strategy from Chinese Youth Perspective:  
Analysis of Determining Factors  
in Employment Location Selection**

Yu Jeong Weon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China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Jing–Jin–Ji (Beijing–Tianjin–Hebei) coordinated development strategy, a major economic zone in northern China, on the employment decisions of young peopl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primarily focused on economic outcomes,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Jing–Jin–Ji region, which faces social challenges such as demographic crisis and youth talent outflow, aligns with the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young people. To empirically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ial and employment location choices, open-ended and structured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ird-tier cities of Hebei Provin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869 valid responses revealed that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support, livelihood policies)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regional development prospects) have a greater influence on young people’s employment decisions than personal relationship factors (parent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timate relationships, hometown preference). Specifically, social support and livelihood policies function as mediating variables for personal relationship factors, suggesting that when choosing employment locations, young people place greater importance on the support systems

of local communit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and positive outlook for the future rather than personal connections or regional 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ent tendency of Chinese youth to rely on personal networks is part of a coping mechanism for an uncertain future.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Jing-Jin-Ji coordinated development strategy, a software approach focusing on substantive improvement of social policies must be pursued alongside hardware approaches such as physic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pecifically,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housing stability, create quality jobs, and strengthen social support systems that allow young people to settle stably in local communities and plan for their future. Thes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regional integra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youth talent attraction strategies not only for China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including South Korea.

- Key words: Beijing-Tianjin-Hebei Coordinated Development Strategy, Youth Employment Decision Factors, Hebei,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on Effect Analysis